

# 三國時代 鑄帶의 樣式에 대한 研究

- 鑄의 型式分類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Type of Kwa-Dae in the Ere of the Three Kingdoms

- Mainly classifying the type of the belt plague -

수원대학교 敎育대학원 가정敎育과  
석사 金 殷 朱  
수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부교수 金 文 子

Dept. of Home Economic , Suwon University  
. MA., : Eun Joo Kim  
Clothing & Textile, Suwon University  
Associate Prof. : Moon Ja Kim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鑄帶에   관한  古記錄 및  製作技法 | 참고문헌   |
| III. 鑄의  型式分類             |        |

### < Abstract >

The Yo-Dae(belt) was made of cloths and leather originally. Then, it was decorated with metal decoration to become more developed luxury one. The Kwa-Dae of the Three Kingdom period is called as final shape among those ancient mode.

Dae-Gu (The origin of belt buckle) was the metallic decoration of the leather belt that the northern nomadic tribe used to wear it. It was considered that the Dae-Gu was more decorated and changed to Kwa-Dae with Yo-Pae.

The first stage Dae-Gu didn't have the hook, but a short hook only could move the belt itself was created, and then a movable short hook (China-Jin period Kwa-Dae, etc) to be inside of belt was showed, after that an axis was necessary when it became to long one. It was completed as a belt buckle. The stick shape hook was main stream in China and the other northern countries. Meanwhile, Korea has mostly "T" shape hook, and it shows that we developed our own unique style.

Classifying the type of the belt plague, there are five types due to the scarved shapes on the Kwa-Dae and the changes. Mainly based on the excavated tomb articles of the three kingdoms and referred to Chinese and Japanese ones. It showed that the belt plague was lightly influenced by the times and area, but was slowly changed and developed to different types through those each ages generally.

## I. 서론

三國時代 鈔帶는 布帶나 革帶에 鈔·鉸具·帶端金具들을 못으로 고정시키고, 그 아래에 각종 의미와 용도의 佩飾類를 垂下시킨 구조로서 古墳에서 被葬者에게 着裝되거나 또는 副葬品으로出土되고 있다.

三國時代의 鈔帶에 관한 연구는 日帝로부터 해방 전 日本人들에 의해 古墳出土品들에 대한 일반적이고 피상적인 개념분류로 시작되었다.<sup>1)</sup> 해방 후에는 日本학자들에 의한 日本出土 鈔帶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sup>2)</sup> 그 후 우리나라의 鈔帶研究는 古新羅, 伽倻地域 古墳들에 대한 編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다른 伴出遺物들과 함께 연구되거나<sup>3)</sup> 전체적인 鈔帶의 系統과악이나 변천에 관한 연구<sup>4)</sup>도 일부 행해졌다.

古墳出土의 遺物은 그 型式의 分類를 통하여 文化期와 文化圈 설정을 통한 文化의 源流를 짐작하게 하는, 古墳時代의 중요한 연구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裝身具에 나타난 형태는 그 時代의 사회경제적인 상황과 당시 사람들의 신분과악, 그 材料 및 제작기술면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서 한 時代의 文化의 척도를 가능하게 해 준다.

本考에서는 鈔帶중에서 특히 鈔의 樣式을 三國의 古墳 出土品을 중심으로 하고 中國과 日本의 것을 참고하여, 鈔板部와 垂下部에 透彫된 문양과 그 변화에 따라 다섯 가지 型式으로 나누고 다시 11 類型으로 세분화하기로 한다.<sup>5)</sup> 이에 앞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本考에서 사용할 鈔帶 用語를<sup>6)</sup> 정리해 보고자 한다.

帶鉤 : 金具의 뒷면에 나와있는 단추모양의突起를 띠의 한 끝에 고정하고, 갈고리 모양의 끝부분을 반대편 띠 끝구멍에 걸어서 채우는 띠고리.

鉸具 : 타원 또는 長方形으로 구부린 형태이며 중앙에 옆으로 긴 결쇠를 달아서 띠의 다른 편 끝에 뚫린 구멍 속으로 찢러 넣어 고정하는 띠고리.

鈔(鈔板·帶金具·띠꾸미개) : 띠를 장식하는

金屬製板 하나 하나를 가리키며, 각 鈔는 帶에 붙게되는 부분을 鈔板部라 하고 그 아래에 달린 부분을 垂下部라고 구분한다.

帶端金具(帶先金具·鉸尾·띠끝꾸미개) : 鉸具의 반대편 띠 끝에 붙게되는 띠 끝 장식으로서 착용 시 鉸具의 고리를 지나 몸의 앞쪽으로 늘여지게 된다.

腰佩(띠드리개) : 鈔帶에 垂下되는 裝飾金具중 가장 길이가 긴 大形裝飾으로서 橢圓形板들을 연결시킨 형태이며 下端에는 長圭形 金板이 달려 있다.

佩飾 : 腰佩보다 길이가 짧고 下端에는 砥石, 魚形, 針筒, 曲玉 등의 여러 物件들을 상징하는 金

- 1) 濱田耕作·梅原末治, 『慶州金冠塚と其遺寶』『大正13年度古蹟調査特別報告』第三册, 1924.  
高橋健子, 「上代遺物より見たる大陸文化の輸入」『考古學雜誌』14-15, 1924.
- 2) 齊蘇忠, 「上代帶金具考-特に南朝鮮古墳出土例との比較に就いて」『考古學雜誌』31-6, 1941.  
齊蘇忠, 『古代の裝身具』, 東京: 塙書房, 1963.  
樋口隆康, 「東亞に於ける鈔帶金具とその文化的意義」『史林』33-3, 歷史研究會, 1950.  
梅原末治, 「金銅透彫龍紋帶金具に就いて」『考古學雜誌』50-4, 1965.  
町田章, 「古代帶金具考」『考古學雜誌』56-1, 東京, 1970.
- 3) 尹世英, 「古新羅·伽倻古墳의 編年에 관한 研究-古墳出土 冠帽를 중심으로」『白山學報』17, 1974, pp.41-112.  
李仁淑, 「古新羅裝身具에 대한 一考察」『歷史學報』62, 1974, pp.35-73.  
金基雄, 『新羅의 古墳』, 學生社, 1976.  
金基雄, 『伽倻의 古墳』, 學生社, 1978.  
崔秉鉉, 「古新羅積石木槨墳의 變遷과 編年」『韓國考古學報』10·11合輯, 1981.
- 4) 尹善姬, 『三國時代 鈔帶의 起源과 變遷에 관한 研究』,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5) 三國時代 古墳의 編年에 대해서는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第三版, 1986, p.210 과 尹世英, 「古新羅·伽倻古墳의 編年에 關하여」『白山學報』제7호, 1975, pp.104-107.을 참고하였다.
- 6) 1984년에 韓國考古美術研究所에서 刊行한 『韓國考古學改正用語輯』과 尹善姬의 『三國時代 鈔帶의 起源과 變遷에 관한 研究』(1987년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를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具가 달린 장식이다.

## II. 袴帶에 관한 古記錄 및 製作技法

中國에서의 腰帶는 가죽과 비단이 재료가 되었는데, 가죽으로 만든 것을鞶帶라고 하였으며 비단으로 만든 것을 大帶라고 하였다. 秦과 漢 이전에는 가죽으로 만든 벨트는 남자에게만 사용되었고 여자들은 비단 벨트를 사용했다.<sup>7)</sup>

中國의 古文獻들을 살펴보면 과대의 풍습을 北方胡族 起源으로 추정하고 있다. 王國維의 「胡服考」를 통해 보면 중국 漢代에 胡服인 袴褶이 武人 服裝으로 들어와서 下級에서 착용되다가 魏代에 들어와 官의 上下로 보급되었고, 이에 따르는 胡帶의 사용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漢代에 사용하던 '大帶'와 '革帶'에는 장식이 없었으며 胡帶에만 장식이 있었던 것을 밝히고 있다. 후세에 그것을 飾名으로 삼아 '校飾革帶'(吳志諸葛恪傳), '鞍飾革帶'(御覽吳錄), '金環參鑲帶'(御覽中記), '金梁絡帶'(金樓子), '起梁帶'(新舊兩唐書與服志) 등으로 불렀는데, 이는 모두가 漢名이며 胡名은 '郭洛帶'라 하였다.<sup>8)</sup>

이러한 袴帶를 착용한 모습이 西晋代인 297년의 宣興晉墓<sup>9)</sup>에서 발견된다. 墓主는 周處라고 되어 있는데, 『晉書』卷五十八 列傳 第二十八 周處傳에 의하면 그는 242년 三國 東吳 出身으로 西晋에서 出仕한 武人인데 元康 6년에 '建威將軍'을 전사한 후에는 '平西將軍'을 追贈받았고, 歸葬時에 다시 上鄉에 속하는 高級武官인 '前將軍'을 加贈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그가 佩用하고 있던 袴帶一襲은 晋代 '平西將軍'이나 '前將軍'의 軍服에 수반되는 帶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러한 종류의 袴帶는 중국에 있어서 대단히 귀중하고 희귀한 것으로 지극히 規格성이 높은 것이고 高級武官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급 받은 裝具라 여겨진다.<sup>10)</sup>

高句麗에 있어서 袴帶에 관한 기록은『翰苑』高麗條에 … 長袴要有銀帶左佩礪而右佩五子刀 …<sup>11)</sup>라는 기록이 있다. 이것으로 보아 高句麗도 胡服

의 복식인 긴 바지에 銀帶를 차고 左右에 숫돌과 칼을 佩用했음을 알 수 있다.

百濟古墳에서도 銀製袴帶 腰佩등이 출토되고 있으나 문헌상으로는 袴帶에 관한 기록은 발견할 수 없다. 다만 『舊唐書』卷一百九十九 列傳 第一白 四十九 東夷條에 其王服大袖紫袍 青錦袴 烏羅冠 金花爲飾 素皮帶 烏革履<sup>12)</sup>라는 기록이 있다. 王이 青錦袴와 大袖紫袍를 입고 烏羅冠을 쓰고 素皮帶를 매고 烏革履를 신었다고 하였다. 가죽혁대를 맨 것으로 보아 金屬製 鉸具 또는 帶鉤가 함께 佩用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新羅에 관한 기록으로는 『三國史記』卷三十三 雜志 第二 色服條에 眞骨大等 腰帶禁研文白玉… 六頭品 帶只用烏犀 鑰鐵銅 五頭品 腰帶只用鐵 四頭品 腰帶只用鐵銅<sup>13)</sup> 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로써 袴帶를 上下一般 모두가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骨品の 品階에 따라서 재료가 相異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製作技法은 型式分類의 한 조건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袴帶의 경우 그 기법이 비교적 간단한 것으로서 먼저 심을 낸 布帛이나 革으로 만든 帶를 안 쪽에 대고 그 위에 袴를 놓고 고정하는 것이다. 袴를 帶에 고정하는 데는 方形 鑄인 경우에는 보통 9개의 못을, 逆心葉形 鑄인 경우에는 3개의 못을 이용한다. 鉸具는 袴에 鉸具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분리된 경우가 있다. 분리된 경우에는 袴 뒷면에 삼각형 철판을 대어 못으로 鉸具와 고정시키고 있다. 帶端金具는 앞서 살펴 본 대

7) 周迅, 高春明, 『中國歷代婦女妝飾』, 三聯書店, 上海學林出版社, 1988, p.258.

8) 王國維, 「胡服考」『觀堂集林』卷二十二, 1958, 町田章, Op. cit. 1970, pp.46-48에서 재인용

9) 羅宗眞, 「江蘇宣興晉墓發掘報告」『考古學報』, 1957-4, 科學出版社, p.772.

10) 『晉書』, 景仁文化社, 1975, pp.1569-1571, … 追贈平西將軍 賜錢百萬 葬地一頃 京城地五十畝爲第 又賜王家近田五頃 …

11) 張楚金, 『翰苑』高麗, 韓國學古典시리즈, 亞細亞文化社, 影印本, 1974, p.47.

12) 『舊唐書』, 景仁文化社, 1977, p.5329.

13) 『三國史記』, 乙酉文化史, 1984, pp.321-322 .

로 안쪽에 대는 布帛帶나 革帶를 삽입할 수 있도록 끝이 돌로 벌어져 있고 이 사이에 帶를 삽입한 후 못으로 고정하게 된다.<sup>14)</sup> 이러한 鈔帶는 金製·銀製·鐵地銀被製·金銅製등이 알려지고 있으나 帶는 유기질로 되었으므로 부식되어 遺存예가 없다.

三國時代의 鈔帶의 金工技法으로는 透彫의 기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透彫란 금속판을 끊어내는 기술을 말한다. 古代에는 金屬板을 문양에 따라 또는 어떤 윤곽대로 작은 구멍을 수 없이 뚫어 구멍과 구멍 사이를 끌로 끊었다. 큰 구멍을 내는 곳에는 줄로 가다듬었다. 例로 鈔帶의 鈔板 같은 장신구류는 모두 이 방법을 썼다.

陰刻技法이 사용된 것으로는 天馬塚 銀製腰佩 垂下飾의 경우 龍紋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龍紋 주위를 陰刻했으며, 武寧王陵 腰佩 垂下飾의 鬼面紋과 腰佩 上端의 두꺼비紋 주위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 點線彫, 象嵌, 鏤金細工기법, 鍍金의 기법이 쓰였다. 鏤金細工技法은 金具의 표면에 金微粒子를 고착시켜 하나의 문양을 형성해 주는 방법으로 曲玉장식물의 金帽에서 나타난다. 鏤金은 소위 Filigree수법에 의한 장식이다. 이 수법은 원래 이집트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며, 그것이 中央아시아를 거쳐 우리 나라에까지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sup>15)</sup>

### III. 鈔의 型式分類

鈔板·鈔具·帶端金具를 갖춘 鈔帶樣式이 출토된 가장 이른 例는 晋代鈔帶로써 三國時代 鈔帶樣式의 틀이 마련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三國時代의 鈔帶樣式이 어느 날 갑자기 出現한 것은 아닌 듯 생각된다. 鈔帶 以前에 사용되었던 帶鉤를 통하여 그 변화과정을 추정해보고, 三國時代 鈔帶를 型式分類 하고자 한다.

#### 1. 帶鉤와 鈔具

北方 유라시아 유목민족들은 騎馬와 遊牧生活

에 편리한 襦袴복장을 하였고 이를 여미기 위해 革帶를 매었다. 革帶에는 동물형의 金屬製 장식이 달려있어 앞에서 걸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帶鉤라 한다.

초기 유라시아 스키타이系 帶鉤는 주로 瑞獸形을 사용하였으나<sup>16)</sup> 우리 나라의 動物形 帶鉤는 이러한 北方유라시아대륙의 靑銅器文化의 영향이 농후하게 나타나 있는 사실적인 動物意匠(圖面 1-1)을 하고 있으며, 靑銅器末期에 출현해서 初期鐵器時代를 거쳐 古墳時代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sup>17)</sup> 또한 棒形類의 帶鉤의 걸쇠부분이 대부분 동물의 머리모양을 하고 있어(圖面 1-2) 그 공통점을 보인다.

初期의 帶鉤는 걸쇠가 없거나(圖面 1-3) 뒷면에 고리를 가지는 帶鉤(圖面 1-4)에서 발전하여 體部 밖에 움직이지 않는 짧은 걸쇠(圖面 1-5)가 생기게 되고, 이 짧은 걸쇠가 점점 體部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거쳐 움직이는 짧은 걸쇠(圖面 1-6)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體部 밖에 위치하던 걸쇠가 점차 體部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되면서 軸이 생기게 된다.<sup>18)</sup>

以後 中國과 北方에서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벨트의 鈔具처럼 基部에 바로 T字形 걸쇠가 달린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鈔具가 애용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 三國時代의 鈔具들은 걸쇠와 軸이 하나로 만들어진 T字形 걸쇠를 내부에 끼운 구조(圖面 1-7)로 되어있다. 三國時代에 이 型式이 널리 쓰였으며 또한 日本에도 전해진 것(圖面 1-8)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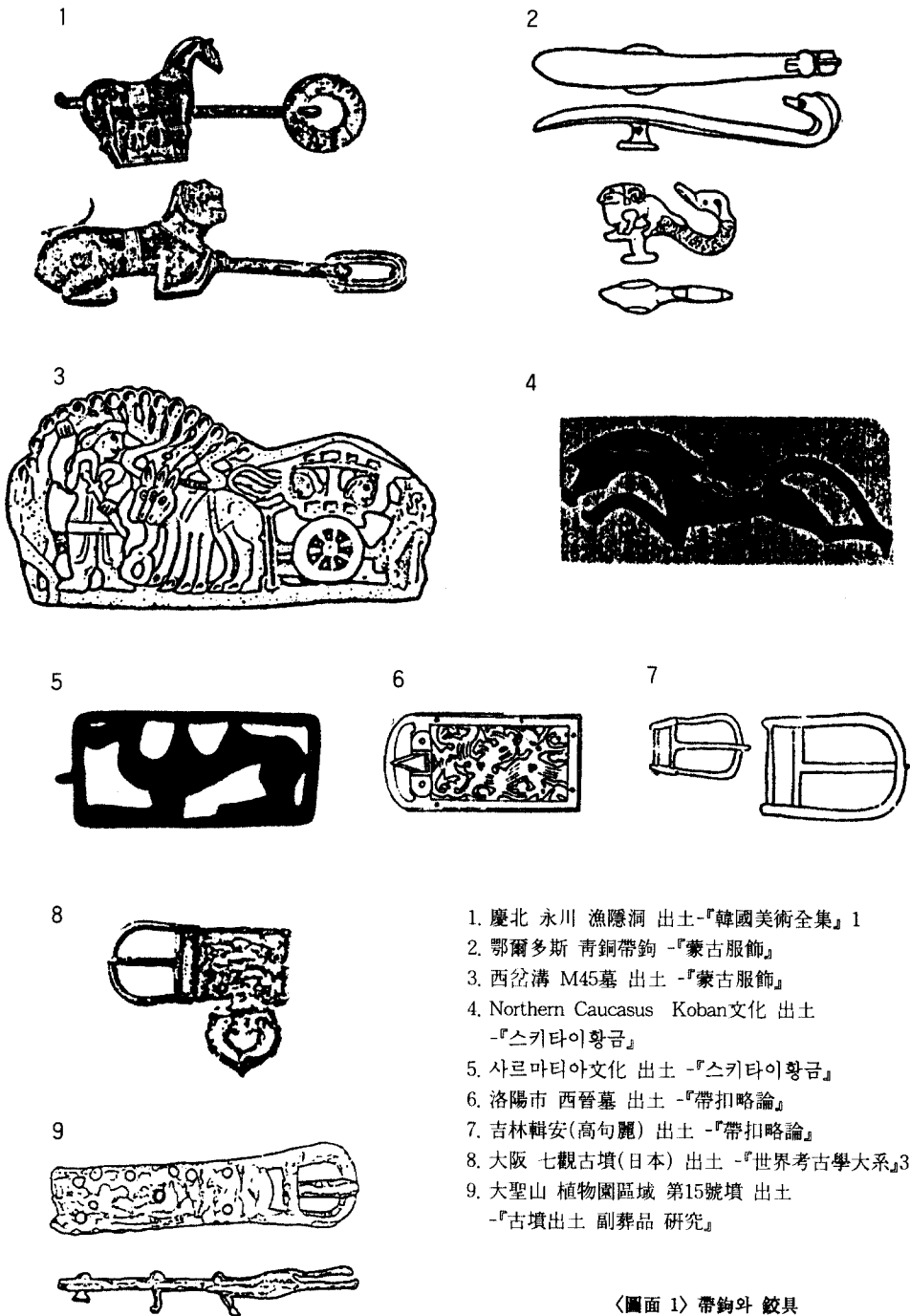
14) 김문숙, 「삼국시대 鈔帶에 관한 연구」『服飾』 30號, 1996, p.16.

15) 秦弘燮, 「韓國文化의 考古學의 研究」『韓國文化史大系』, 1985, p.191.

16) 金文子, 「古代 우리나라 帶鉤에 대한 研究」『服飾』 제 27호, 1996, p.25.

17) 韓炳三, 『韓國文化史大系』 國寶2 古墳金屬II, 서울: 藝耕産業社, 1986, p.202.

18) 王仁湘, 「帶鉤略報」『考古』 1986-1, p.65-75의 帶鉤變遷과정을 참고.



한편 大聖山 植物園區域 第15墳 出土 鉸具의 (圖面 1-9) 형태는 T字形 걸쇠이나 軸이 움직이지 않는 固定쇠로 보이며, 따라서 움직이는 T字形 걸쇠의 前 段階로 생각되어 주목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帶鉤는 스키타이系 服裝과 함께 들어와 착용되고 후에 점차 裝飾化되면서 腰佩가 달린 鈔帶類로 변해가고 중국식 복장의 전래로 布帛帶類와 함께 착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19)</sup>

## 2. 鈔의 型式分類

鈔의 型式은 A.D.4-6세기에 해당하는 三國의 古墳 出土品을 중심으로 하고 中國과 日本의 것을 참고하여, 鈔板部와 垂下部에 透彫된 문양과 그 변화에 따라 다섯 가지 型式으로 나누고 다시 11 類型으로 세분화하기로 한다. 각 型式의 鈔는 시기적·지역적인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II 型式에서와 같이 新型式으로 변화된 뒤에도 古型式이 新型式과 함께 공존하면서 사용되었음이 발견된다.

金屬遺物에 있어서 어떤 유물의 古型式은 新型式이 출현한 뒤에도 계속 쓰여질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한 고분에서 같은 유물의 新古式이 迸出되는 예가 많은 것이다. 즉 금속유물은 유물 자체의 傳世뿐만 아니라 양식자체의 持續이 강한 것이며 貴金屬類 경우 또 稀貴品일수록 그러한 가능성은 더욱 큰 것이다.<sup>2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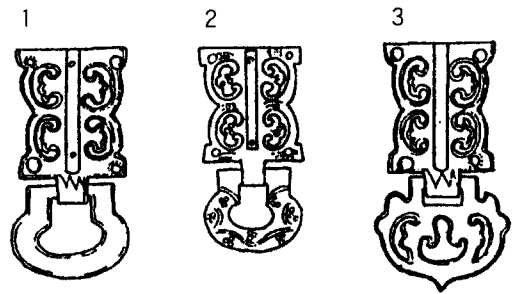
한편 中國에서는 晋代鈔帶의 型式이 唐代에 들어서면 鈔의 형태가 전혀 다른 靑銅製 혹은 石製의 方形과 半橢圓形으로 구성된 帶 形式으로 변화된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나라 三國時代 後記, 즉 6世紀 後半부터 7世紀 代에 해당하는 石室墓의 출토 예들에서도 보이고 있다.<sup>21)</sup>

### 1) I 型式 - 晋代式 龍紋·三葉紋 透彫 鈔 型式

#### ① I-1 型式 (晋代式 鈔)

가. I-1a 型式 (晋代式 三葉紋 透彫 鈔)

I-1a 型式은 세로로 긴 鈔板部에 三葉紋이 上



1. 3. 傳 慶北 地龍城附近 出土  
-『帶金具』
2. 洛陽市 西晋墓  
-『洛陽晋墓的發掘』

〈圖面 2〉 I-1a 型式

下로 2개씩 좌우대칭으로 透彫되어 있고, 垂下部에는 橢圓形 遊環이 달려있다. 표면에는 덩굴과 같은 식물문양을 표현(圖面 2-2)하여 裝飾美를 더하고 있다. 또 한 종류는 垂下部가 心葉形으로서 내부에 덩굴줄기가 透彫되어 있는데(圖面 2-3) 줄기 끝에 돌기들이 달려있어 漢代 怪雲紋의 전통이 전해진 것으로 생각된다.<sup>22)</sup>

三葉紋은 그 주위를 橢圓形의 덩굴줄기가 감싼 형태로서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紋樣은 스키타이 계통문화에 의한 西方文化의 전파과정의 하나로써 이미 漢代 以前에 中國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sup>23)</sup> 예를 들면 알타이 지방의 Pazyryk나 Shibe古墳의 출토 유물의 紋樣帶(圖面 3)에서 이

19) 金文子, Op. cit. 1996, p.17.

20) 崔秉鉉, Op. cit. 1981, p.145.

21) 尹善姬, Op. cit. 1987, p.2-3.

慶尙南道 蔚州郡 華山里 第34號墳(橫穴式石室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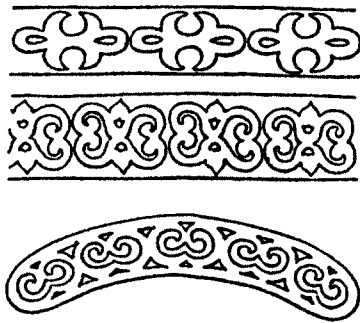
釜山市 北歐 華明洞 第3號墳(豎穴式石室墳)

慶州市 將軍路 第1號墳

慶尙南道 金海郡 禮安里 第49, 30號墳(橫穴式石室墳)

22) 金元龍·安輝濬, 『新版韓國美術史』,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p.125.

23) 梅原末治, 「漢代の植物文様に就いて」, 『アルタイ地方に於ける考古學上の發見』 『古代北方系文物の研究』, 京都:星野書店, 1938, pp.151-205.



〈圖面 3〉 Pazyryk古墳 紋樣帶  
-『古代北方系文物の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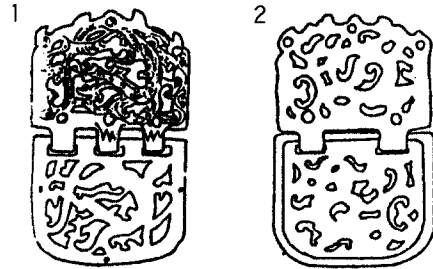
미 雙葉紋과 三葉紋이 도안화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B.C. 1世紀末-A.D. 1世紀初에 해당하는 匈奴계통의 Noin-ula墳墓 出土의 毛織物刺繡의 植物紋樣 가운데에도 三國時代 鈔板에 보이는 三葉紋과 강한 親緣性을 보이고 있는 예가 있다.<sup>24)</sup> 이러한 三葉紋이 中國 晉代에 이르러 龍과 함께 鈔帶의 主紋樣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傳 慶北地龍城附近 出土品(圖面 2-1·3)은 洛陽市 西晉墓 出土品(圖面2-2)과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다. 前者는 中國으로부터의 수입품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中國과 한반도 그리고 日本에서 소량이 발견되었고 以後 時期의 출토품이 없으며 以後 한반도에서는 II型식의 鈔가 主流를 이루면서 발전하였음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 型식의 鈔가 출토된 古墳으로는 日本 新山古墳<sup>25)</sup> 傳 慶北地龍城附近 出土<sup>26)</sup> 洛陽市 西晉墓<sup>27)</sup> 集安 馬山轉山子 159號墳<sup>28)</sup> 京都大學博物館 所藏<sup>29)</sup> 등이 있다.

나. I-1b 型式 (晉代式 龍紋 透彫 鈔)

이 型식의 鈔는 I-1a 型식의 鈔와 一襲을 이루어 함께 출토되고 있다. 윗면이 火焰紋인 長方形의 鈔板部와 長方形의 모서리를 둥글린 垂下部로 구성되어 있다. 鈔板部와 垂下部 연결고리는 2-3개이다. 鈔板部와 垂下部 모두에 側面形의 龍이 사실적 형태이거나 脫化 龍紋으로 透彫되어 있는 型식이다.(圖面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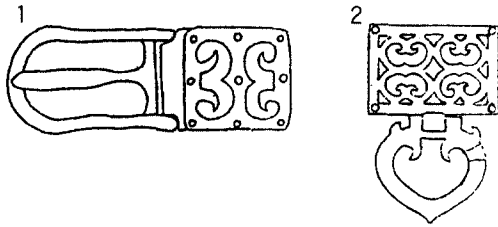
1. 미국 Boston 個人所藏  
-『金銅透彫龍紋帶金具に就いて』  
2. 傳 慶北 地龍城附近 出土  
-『帶金具』

〈圖面 4〉 I-1b 型式

龍이 中國에서 紋樣으로서 表現되기 시작한 것은 殷周時代부터이고, 일체의 龍紋은 中國의 空想의 所산으로서 초경험적인 靈獸로서 中國의 정신계에 지배적인 역할을 점유했으며, 그것을 具象化시킨 圖形은 여러 방면에 사용되어 紋樣界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sup>30)</sup>

이러한 型식의 鈔로는 京都大學博物館 所藏(中國 出土)<sup>31)</sup> 미국Boston 山中商會支店 所藏(中國 出土)<sup>32)</sup> 國立慶州博物館 所藏<sup>33)</sup> 傳 慶尙北道 地龍城附近 出土의 것이 있다.

24) 梅原末治, 『蒙古ノイン・ウラ發見の遺物』, 東洋文庫論叢 第27冊, 1938.  
25) 梅原末治, Op. cit. 1965, pp.233-252.  
26) 口繪, 『帶金具』『考古學雜誌』 20-11, 1930, p.786.  
27) 河南省文化局文物工作隊 第二隊, 『洛陽晉墓的發掘』, 『考古學報』 1957-1, 科學出版社, p.180.  
28) 集安縣文物保管所, 『集安高句麗墓發掘簡報』『考古』 1983-4, pp.303-305.  
29) 梅原末治, Op. cit. 1965, pp.233-252.  
30) 樋口隆康, Op. cit. 1950, p.279.  
31) 梅原末治, Op. cit. 1965, pp.233-252.  
32) Ibid. pp.233-252.  
33) 國立慶州博物館, 『李養濬博士蒐集文化財』, 1986, 圖版 120.



1. 皇南里 82號墳 東塚主槨  
-『慶州皇南里第82號墳, 第83號墳調査報告』
2. 小倉 所藏品(傳 慶南 出土品)  
-『寄贈小倉コレクション目録』

〈圖面 5〉 I-2 型式

### ② I-2 型式 (二葉紋 透彫 鈔)

長方形의 鈔板部에 二葉紋이 透彫된 型式의 것이다(圖面 5-1). 二葉紋은 I-1a 型式의 三葉紋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며, 小倉 收藏品(圖面 5-2)의 아래에는 心葉形의 垂下部가 달려있어 더욱 그 관련성을 강하게 한다. 二葉紋은 三葉紋과 함께 알타이 지방의 裝飾紋樣帶(圖面 3)에서도 보이고 있어 그 발원지를 짐작하게 한다. 三葉紋과 함께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二葉紋은 한반도보다 日本의 出土品이 많고 더 화려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한반도를 거쳐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 型式의 鈔가 出土된 古墳은 慶州 皇南里 82號墳<sup>34)</sup> 日本 新開古墳<sup>35)</sup> 小倉Collection 所藏品<sup>36)</sup> 奈良縣 新澤古墳 126號墳<sup>37)</sup> 등이다.

### ③ I-3 型式 (方形板 龍紋 透彫 鈔)

正方形에 가까운 長方形의 鈔板部에 龍紋이 透彫된 型式이 속한다. 晋代鈔帶의 主紋樣이던 龍은 三國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圖面 6). 또한 日本에서도 다른 型式에 비해 남아있는 예들이 많다. 다만 晋代鈔帶에서 鈔帶一式으로 出土되던 龍과 三葉紋은 三國과 日本에서는 분류되어 변화하였고, 鈔板部 윗변의 火焰文이 사라지면서 단순한 方形이 되는 기본 틀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鈔板에 透彫된 龍紋은 脫化·型式化가 진전된

것이 대부분이다. 龍紋의 脫化와 '抽象蔓狀化'로의 변화는 中國·韓半島全域·日本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sup>38)</sup> 이 型式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있다.

이 型式의 鈔들이 出土되고 있는 古墳은 集安 通溝 873號墳<sup>39)</sup> 平南 湖南里 四神塚<sup>40)</sup> 全北 雲鶴里 C古墳<sup>41)</sup> 皇南大塚南墳<sup>42)</sup> 日本 五條猫塚古墳<sup>43)</sup> 日本 築後月岡古墳<sup>44)</sup> 日本 七觀古墳<sup>45)</sup> 日本 穀塚古墳<sup>46)</sup> 등이 있다.

## 2) II 型式 - 方形板 三葉紋 透彫 鈔 型式

### ① II-1 型式 (三葉紋 透彫 鈔)

正方形에 가까운 鈔板部와 心葉形의 垂下部로 구성된 형태이며, 鈔板部에는 三葉의 忍冬唐草紋과 덩굴가지들을 透彫하고 垂下部의 心葉形 내부에도 역시 덩굴가지들이 透彫되어 있다. II 型式의 三葉紋 透彫 鈔는 그 出土량도 많고 그 사용시기도 길다(A.D. 4-6세기). 또한 그 변화의 형태가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II-1 型式의 鈔가 더욱 더 복잡해져서 II-2 型式으로 변한 것으로 생각되며, 한편으로는 단순화하는 과정을 거쳐 II-3 型式과 II-4 型式으로 변해 간 것

34) 有光教一, 「慶州皇南里第82號墳, 第83號墳調査報告」 『昭和 6年度古蹟調査報告第1冊』, 1935, p.20.

35) 町田章, Op. cit. 1970, pp.38-41.

36) 東京博物館, 『寄贈小倉コレクション目録』, 1982.

37) 町田章, Op. cit. 1970, pp.38-41.

38) 孟仁在, 「古新羅工藝의 透作무늬에 대하여」 『考古美術』 150, 韓國美術史學會, 1981, p.12.

39) 吉林省文物工作隊, 「1976년 集安洞溝高句麗墓清理」 『考古』 1984-1, pp.69-76.

40) 梅原末治·藤田亮策編著, 『朝鮮古文化綜鑑』 第四卷, 奈良: 養徳社, 1966, p.22.

41) 全羅北道博物館, 「井邑 雲鶴里古墳群」 『全北遺蹟調査報告第3輯』, 1974, pp.2-3.

42)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慶州皇南洞第98號古墳(南墳)發掘略報告』, 1976, p.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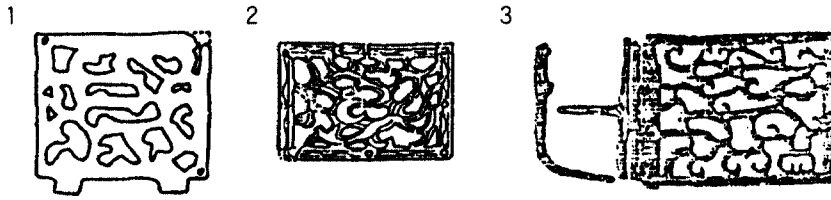
43) 町田章, Op. cit. 1970, pp.38-41.

44) 齊蘇忠, 「上代帶金具考-特に南朝鮮古墳出土例との比較に就いて」 『考古學雜誌』 31-6, 1941, p.3.

45) 町田章, Op. cit. 1970, pp.3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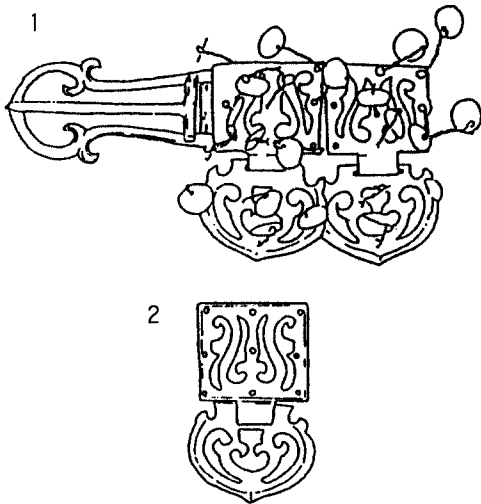
46) Ibid, pp.38-41.





1. 集安通溝873號墳 - 『1976년 集安洞溝高句麗墓清理』
2. 全北 井邑 雲鶴里 C古墳 - 『井邑 雲鶴里古墳群』
3. 皇南大塚南墳 - 『慶州皇南洞第98號古墳(南墳)發掘略報告』

〈圖面 6〉 I-3 型式



1. 金冠塚(金) - 『慶州金冠塚及其遺寶』
2. 宋山里 1號墳 - 『公州宋山里古墳調查報告』

〈圖面 7〉 II-1 型式

이라고 생각된다(圖面 14 참조). 변화 以前의 古型式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新型式과 함께 지속적으로 함께 사용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비교적 늦은 시기의 古墳으로 추정되는 金冠塚에서는 II-1 型式·II-3 型式·II-4 型式·V 型式의 鈔들이 모두 출토되었으며, 또한 II 型式과 V 型式의 鈔의 출토시기가 서로 중복되고 있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한편 新羅지역의 金冠塚(圖面 7-1)과 百濟지역

의 公州 宋山里 1號墳(圖面 7-2)에서 동일한 형태의 것이 출토되어 兩者간의 문화교류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출토된 古墳으로는 公州 宋山里1號墳<sup>47)</sup> 金冠塚(金, 銀)<sup>48)</sup> 등이 있다.

② II-2 型式 (三葉紋 透彫 鈔)

II-1 型式의 鈔板部와 垂下部의 三葉紋과 덩굴가지들은 그 가지 數를 늘려 더욱 복잡하고 화려한 형태로 변한다(圖面 8-1). 鈔板部 中央의 三葉紋과 주위의 덩굴가지들의 연결이 점차 直線化되면서 樣式化되어 高山里 9號墳(圖面 8-2)과 같은 형태로 변한 것도 있다. 天馬塚 出土品(圖面 8-3)의 鈔板部를 살펴보면 上下의 葉의 수가 적어지면서 三角形의 모양이 透彫되는 형태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出土된 古墳으로는 梁山 北亭里 金鳥塚<sup>49)</sup> 平南 高山里 9號墳<sup>50)</sup> 慶熙大學校博物館所藏品<sup>51)</sup> 天馬塚<sup>52)</sup> 湖南里 四神塚 등이 있다.

47) 野守健·新田惣藏, 「公州宋山里古墳調查報告」『昭和2年度古蹟調查報告第2冊』, 1935, p.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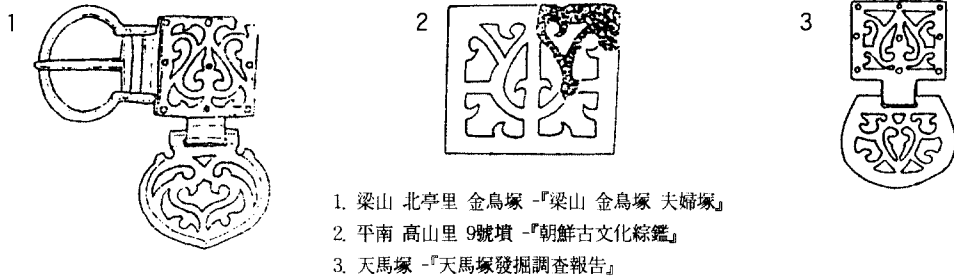
48) 濱田耕作·梅原未治, Op. cit. 1924, p.122.

49) 東亞大學校博物館, 「梁山 金鳥塚 夫婦塚」『古蹟調查報告』第19冊, 1991, pp.41-45.

50) 梅原未治·藤田亮策編著, 『朝鮮古文化綜鑑』 第四卷, 奈良: 養德社, 1966, p.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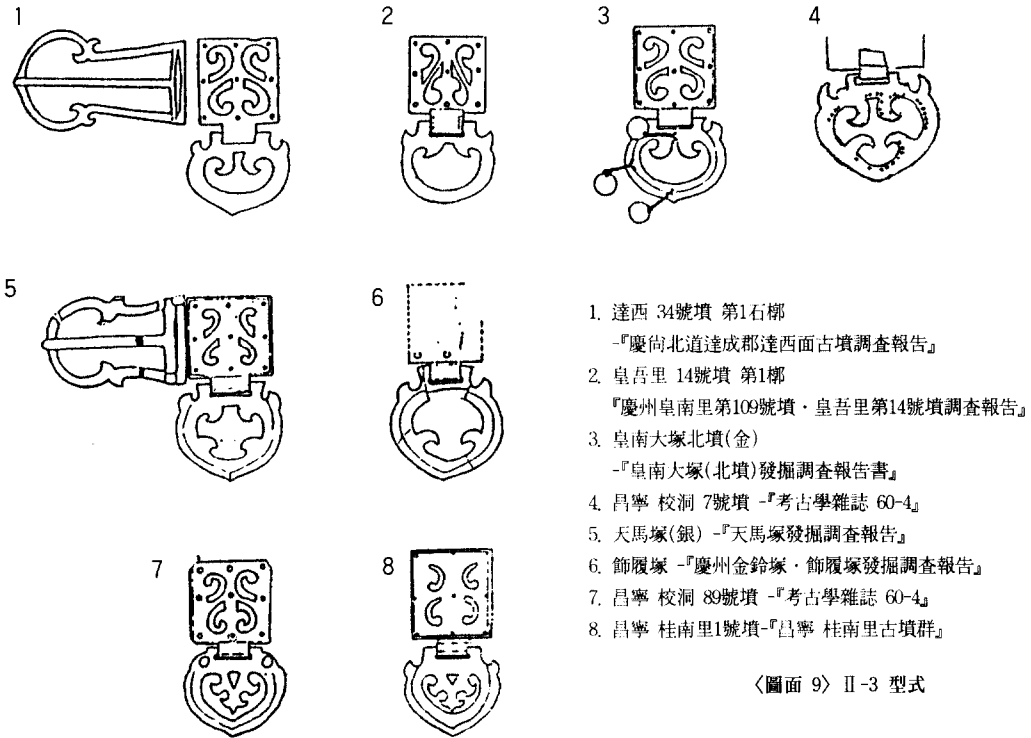
51) 慶熙大學校博物館, 『慶熙大學校博物館圖錄』, 1986, p.42.

52)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天馬塚發掘調查報告』, 1974, p.103.



1. 梁山 北亭里 金鳥塚 -『梁山 金鳥塚 夫婦塚』
2. 平南 高山里 9號墳 -『朝鮮古文化綜鑑』
3. 天馬塚 -『天馬塚發掘調査報告』

〈圖面 8〉 II-2 型式



1. 達西 34號墳 第1石槨  
-『慶尙北道達成郡達西面古墳調査報告』
2. 皇吾里 14號墳 第1槨  
『慶州皇南里第109號墳·皇吾里第14號墳調査報告』
3. 阜南大塚北墳(金)  
-『阜南大塚(北墳)發掘調査報告書』
4. 昌寧 校洞 7號墳 -『考古學雜誌 60-4』
5. 天馬塚(銀) -『天馬塚發掘調査報告』
6. 飾履塚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
7. 昌寧 校洞 89號墳 -『考古學雜誌 60-4』
8. 昌寧 桂南里1號墳-『昌寧 桂南里古墳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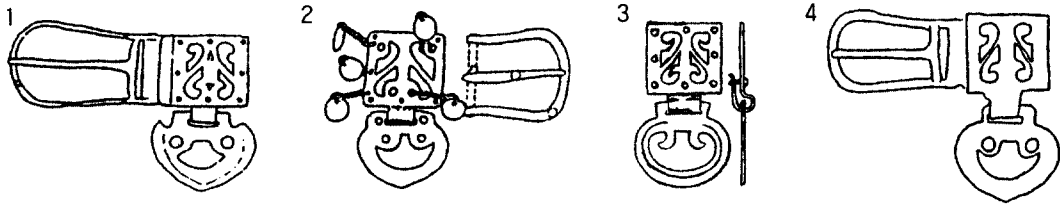
〈圖面 9〉 II-3 型式

③ II-3 型式 (三葉紋 透彫 鈴)

II 型式중 가장 많은 數를 차지하고 있는 형태로서 三葉紋이 투조되어 있는 正方形의 鈔板部와 心葉形의 垂下部로 구성되어 있다. 三葉紋의 中央葉과 左右의 줄기부분이 직선화되면서 樣式化가 進行되었다. 이에 따라 三葉紋으로 보여지기보다

는 4개의 갈고리가 서로 대칭의 형태로 보일 정도로 변해있는 것도 있다.(圖面 9)

昌寧 校洞 7號墳(圖面 9-4)·天馬塚 銀製品(圖面 9-5)·飾履塚 出土品(圖面 9-6)은 垂下部의 透彫紋樣이 다른 것들과 차이가 있다. 垂下部 안에 上下로 각각 2개의 돌기가 透彫되어 있는데, 이는



1. 昌寧 校洞 7號墳 -『考古學雜誌 60-4』
2. 金鈴塚(金)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查報告』
3. 飾履塚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查報告』
4. 慶州 路西里138號墳 -『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第2冊』

〈圖面 10〉 II-4 型式

前 段階인 II-1 型式(圖面 7)의 垂下部 透彫紋樣의 돌기가 上下로 분리되면서 형성될 수 있는 형태이어서 본격적인 II-3 型式(圖面 9-1·2·3)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문양일 것으로 추정된다. 즉, 圖面 7의 垂下部의 上下연결돌기는 圖面 9-4 처럼 上下로 분리되고 점차 아래부분의 돌기가 사라지면서 圖面 9-1의 鈔와 같이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昌寧 校洞 89號墳(圖面 9-7)·昌寧 桂南里 1號墳(圖面 9-8)·昌寧 校洞 1號墳·昌寧 校洞 7號墳 出土의 鈔들의 垂下部 안의 문양은 앞서의 돌기 2개의 형태에 三葉의 형태가 더해져있다. 이 형태는 출토품이 적고 또한 昌寧지역에서 출토된 것 뿐 이어서 단정하긴 어려우나 지역적 특색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出土된 古墳으로는 慶州 皇南洞 第110號墳<sup>53)</sup> 飾履塚<sup>54)</sup> 達西 51號墳·34號墳·達西 59號墳<sup>55)</sup> 皇吾里 33號墳<sup>56)</sup> 皇吾里 14號墳<sup>57)</sup> 星州 星山洞 第1號墳<sup>58)</sup> 義城 塔里古墳<sup>59)</sup> 皇南大塚北墳<sup>60)</sup> 梁山 夫婦塚(夫)<sup>61)</sup> 昌寧 校洞 7號墳·89號墳<sup>62)</sup> 昌寧 桂南里 1號墳<sup>63)</sup> 天馬塚 皇南大塚南墳등이 있다.

#### ④ II-4 型式 (三葉紋 透彫 鈔)

鈔板部の 형태는 II-3 型式과 동일하지만 垂下部의 忍冬唐草紋 돌기가 줄기에 붙어서 그 내부가 圓으로 透彫된 형태(圖面 10-1·3·4)이거나, 鈔板部の 中央 三葉紋과 가지 끝 역시 圓형태로

변하여 양식화가 절정에 다다름에 따라 三葉紋의 원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게 변한 것(圖面 10-2)도 있다.

이 型式의 鈔가 출토된 古墳으로는 慶州 路西

- 53) 金宅圭·李殷昌, 「皇南洞古墳發掘調查概報」『嶺南大學校古蹟調查報告第1冊』, 嶺南大學校博物館, 1975, p.19.
- 54) 梅原未治,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查報告」『大正13年度古蹟調查報告第1冊』, 1932, p.219.
- 55) 野守健·小泉顯夫, 「慶尙北道達成郡達西面古墳調查報告」『大正12年度古蹟調查報告第1冊』, 1932, pp.61, 91, 116.
- 56) 文化公報部, 「慶州皇吾里1·33號, 皇南里151號古墳發掘調查報告」『文化財管理局古蹟調查報告第2冊』, 1969, p.67.
- 57) 齊蘇忠, 「慶州皇南里第109號墳·皇吾里第14號墳調查報告」『昭和 9年度古蹟調查報告第1冊』, 1937, p.71.
- 58) 濱田耕作·梅原未治, 「慶尙北道慶尙南道古墳調查報告書」『大正 7年度古蹟調查報告第1冊』, 1922, pp.4-5, 8-10.
- 59) 金載元·尹武炳, 「義城塔里古墳」『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第3冊』, 1962, p.30.
- 60)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皇南大塚(北墳)發掘調查報告書」, 1985, p.91.
- 61) 小川敬吉, 「梁山夫婦塚卜其遺物」『古蹟調查特別報告第5冊』, 1927, p.53.
- 62) 穴澤和光·馬木順一, 「昌寧校洞古墳群-『梅原考古資料』を中心とした谷井濟一氏 發掘資料の研究-」『考古學雜誌』60-4, 1975, pp.54-57.
- 63) 嶺南大學校博物館, 「昌寧 桂城里古墳群」『學術調查報告』第9冊, 1991, p.292.

里 138號墳<sup>64</sup> 集安 通溝 330號墳<sup>65</sup> 昌寧 校洞 7號墳 金冠塚 金鈴塚 梁山夫婦塚(婦) 飾履塚 등이 있다.

### 3) III 型式 - 橢圓形 鈔 型式

百濟 武寧王陵 出土의 王이 착용하고 있던 銀製鈔帶 一式은 新羅나 伽倻 出土의 鈔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모양 자체는 그리 낯선 것이 아니어서, 心葉形 瓔珞을 매단 크고 작은 橢圓形의 袴들을 交互로 연결한 것과 凹된 형태인 것 등이 新羅와 伽倻지역의 腰佩형태와 동일한 것이어서 문화의 상관관계가 주목된다. 한편 帶端金具 역시 七花形으로 조화를 이룬 모양으로 鈔板과 같은 心葉形이 透彫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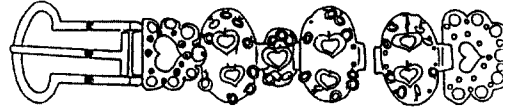
이 型式의 鈔가 출토된 고분으로는 百濟 武寧王陵<sup>66</sup>(圖面 11)이 있다.

### 4) IV 型式 - 鬼面紋 鈔 型式

鬼面의 형태는 대체로 눈이 위로 올라갔고 큰 입에 얼굴 주위로는 갈기같은 선들과 뿔 등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鈔의 제작방법은 板의 뒷면으로부터 두드려내어 세부를 조각한 입체적인 彫金技法이며, 재료는 현존하는 예 모두 金銅製인 것도 다른 型式과 다른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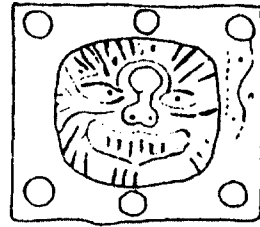
鬼面紋은 초자연적인 존재인 “鬼”의 힘을 빌어 재앙과 질병을 멀리 쫓음으로써 행복을 얻고자 하는 “辟邪求福”의 기원에서 나온 象徴的인 圖案의 하나로 보여진다. 우리 나라 鬼面紋의 起源은 아무래도 中國 殷代 以後에 유행한 古銅器의 饕餮紋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饕餮紋의 기본적인 특징은 눈·뿔·입에 있다. 크게 뜬 눈과 그 위에 있는 거대한 뿔, 그리고 분명하지는 않으나 齒牙가 노출된 입과 두 눈 사이에 코로 보이는 돌기가 있다.<sup>67</sup>

武寧王陵 腰佩 한쪽에 윗 부분이 조금 넓은 사각형의 金具안에 鬼面紋이 透刻되어 있는 데 이 鬼面紋은 얼굴 양옆으로 火焰과도 같은 털이 대여섯 개씩 뻗어 있고 머리에는 털 모양과 같은 두 뿔이 보인다.<sup>68</sup>



武寧王陵(銀) - 『武寧王陵發掘調查報告書』

〈圖面 11〉 III 型式



宋山里 2號墳(金銅) - 『昭和2年度古蹟調查報告第2冊』

〈圖面 12〉 IV 型式

이 型式의 鈔가 출토된 古墳으로는 高嶺 池山洞 39號墳<sup>69</sup> 日本 須坂鎧塚 2號墳<sup>70</sup> 日本 牛文茶白山古墳<sup>71</sup> 宋山里 2號墳 出土品(圖面 12) 日本 小倉Collection所藏品 등이 있다.

### 5) V 型式 - 逆心葉形 鈔 型式

逆心葉形 鈔板部에 3-5개의 못을 박아 帶에 고정하고 아래에는 圓環을 垂下한 형태이다. 이 圓

64) 金載元·金元龍, 「慶州路西里雙床塚·馬塚·138號墳 調查報告」 『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第2冊』, 1955, p.45.

65) 吉林省文物工作隊, 「1976年集安通溝高句麗墓清里」 『考古』 1984-1, 科學出版社, pp.75-76.

66)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武寧王陵發掘調查報告書』, 1973, pp.2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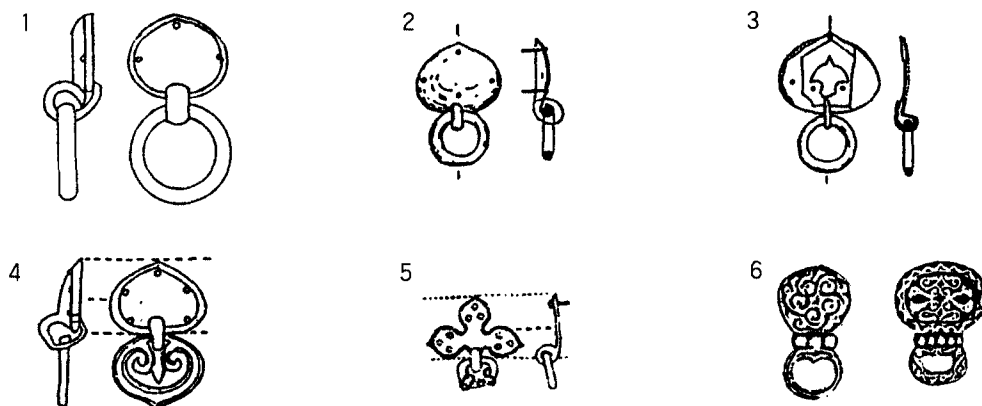
67) 秦弘燮, Op. cit. 1985, p.191.

68) 金有信, 「韓國 鈔帶의 造形性에 관한 研究」, 淑明女大 碩士學位論文, 1986, pp.41-42.

69) 金基雄, 『伽倻의 古墳』, 學生社, 1978, pp.160-161.

70) 金基雄, 「日本の 古墳文化를 통하여 본 韓國文化의 日本傳播」 『韓國史論』 16, 國史編纂委員會, 1986, p.101.

71) 齊蘇忠, 「上代帶金具考-特に南朝鮮古墳出土例との比較に就いて」 『考古學雜誌』 31-6, 1941, pp.331-365.



1. 皇南洞 110號墳 - 『嶺南大學校古蹟調查報告第1冊』
2. 3. 天馬塚(銀) - 『天馬塚發掘調查報告』
4. 金冠塚(銀) - 『慶州金冠塚及其遺寶』
5. 金冠塚(金) - 『慶州金冠塚及其遺寶』
6. Albania 出土 - 『慶州金冠塚及其遺寶』

〈圖面 13〉 V 型式

環은 무언가를 매달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점차 장식적 용도로 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V 型式은 앞의 型式들과는 그 형태가 차이가 있으며, 鈔帶 一식의 구성하는 鈔의 數도 心葉形 透彫 鈔들과는 달리 그 數가 적다. 문양에 있어서는 단순한 無紋이 主流(圖面 13-1·2)를 이루지만 天馬塚 出土(圖面 13-3)의 예는 鈔板에 三葉紋이 透彫되어 있고 金冠塚 銀製品(圖面 13-4)은 垂下部 안에 三葉紋이 透彫된 것이고 나아가 金冠塚 金製品(圖面 13-5)의 것은 鈔板部가 三葉形을 이루고 있어 장식화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V 型式은 新羅와 伽倻地域 외에 百濟와 高句麗 및 日本古墳에서도 出土되었다. 또한 이른 시기의 고분인 皇南洞 110號墳과 皇南里 109號墳에서 出土되고, 비교적 늦은 시기의 古墳인 金冠塚·天馬塚·梁山 夫婦塚에서도 出土되어 비교적 오랜 시기동안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서방 알바니아 出土品(圖面 13-6)을 살펴보면 內部가 心葉形으로 된 圓環을 垂下한 鈔가 보인다. 이를 통해 逆心葉形 鈔 역시 北方에 그 起源을 두고

中國을 거치면서 한반도에 전해지고 다시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文化傳播과정을 추정할 수 있다.

이 型式의 鈔가 출토된 古墳으로는 集安 七星山 96號墓<sup>72)</sup> 集安 通溝 山城下墓區 332號墓<sup>73)</sup> 皇南洞 110號墳<sup>74)</sup> 皇南里 109號墳<sup>75)</sup> 알바니아 出土品<sup>76)</sup> 昌寧 桂城A地區 1號墳 第2棺<sup>77)</sup> 慶州 內東面 普門里古墳<sup>78)</sup> 日本 石川縣 派山古墳<sup>79)</sup> 平南 高山里 9號墳 星州 星山洞 57號墳 飾履塚 金冠塚 天馬

72) 集安縣文物保管所, 「集安縣兩座高句麗積石墓의 清理」 『考古』 1979-1, p.30.

73) 李殿福, 「集安通溝三座壁面墓」 『考古』 1983-4, 科學出版社, pp.308-314.

74) 金宅圭·李殷昌, 「皇南洞古墳發掘調查概報」 『嶺南大學校古蹟調查報告第1冊』, 嶺南大學校博物館, 1975, p.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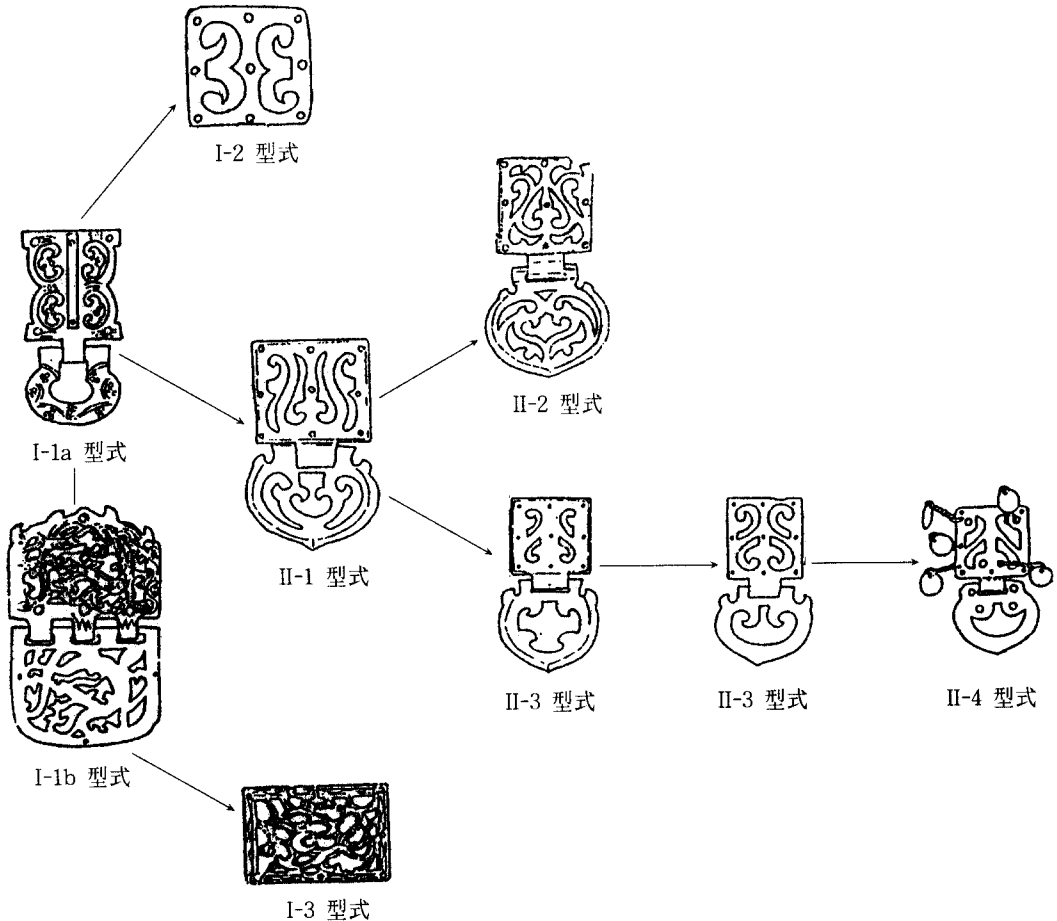
75) 齊蘇忠, Op. cit. 1937, p.22.

76) 濱田耕作·梅原未治, Op. cit. 1924, 圖31.

77) 慶尙南道, 『昌寧桂城古墳群發掘調查報告』, 1977, p.34.

78) 原田淑人, 「慶尙北道慶州郡內東面普門里古墳及慶山郡靑道郡金泉郡尙州郡並慶尙南道梁山郡東萊郡諸遺蹟調查報告書」 『大正 7年度古蹟調查報告第1冊』, 1922, p.6.

79) 齊蘇忠, Op. cit. 1941, pp.331-365.



〈圖面 14〉 鈎帶 型式의 變化

塚 達西 37號墳 2石槨 昌寧 校洞 11號墳등이 있다.

#### IV. 결론

鈎帶의 起源은 멀리 스키타이로 대표되는 北方 遊牧民族이 여행과 戰爭時에 필요한 小道具를 帶에 차던 풍습에서 찾을 수 있다.

三國時代 鈎帶는 晋代鈎帶를 수입하고 이를 변형 발전시켜 그 틀을 마련하였다. 晋代鈎帶에서 볼 수 있듯이, 三國時代 鈎帶는 鈎板部와 垂下部

로 이루어진 鈎와 鉸具 그리고 帶端金具를 갖추고 있다. 또한 龍紋과 三葉紋 그리고 心葉形 垂下部 등도 兩者間의 공통점이라 할 것이다. 이후 II 型式에서와 같이 型式의 변화와 出土량의 절정을 이루며 三國時代 鈎帶의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中國을 거쳐 한반도에 유입된 鈎帶는 日本에서도 三國의 것과 유사한 형태의 것들이 출토되고 있어 문화의 전과과정을 살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鈎帶의 始原樣式은 帶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北方遊牧騎馬民族들은 혁대를 즐겨 사용

하였고 혁대 앞을 여미기 위한 金屬製 장식인 帶鉤를 발전시켰다. 革帶에 帶鉤를 매다는 형식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遊牧騎馬民族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특히 動物形 帶鉤는 학자들이 대표적인 스키타이系 文物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永川 漁隱洞 馬形·虎形帶鉤 등이 있다. 初期의 帶鉤는 걸쇠(고리)가 없으나 體部 밖에 움직이지 않는 짧은 걸쇠가 생기고 점차 體部 안으로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짧은 걸쇠(中國 晋代鈔帶 등)가 생기고 점차 길어지면서 축이 필요하게 된다. 이로써 鉸具의 형태가 된다. 다만 中國을 비롯한 北方地域에서는 一字形 걸쇠가 주류인 반면 우리 나라에서는 T字形 걸쇠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우리 민족의 독자적인 양식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鈔의 型式은 三國(A.D.4-6세기)의 古墳 出土品을 중심으로 하고 中國과 日本의 것을 참고하여, 鈔에 透彫된 紋樣과 그 변화에 따라 다섯 가지 型式 11類型으로 분류하였다. I 型式은 晋代式 龍紋과 三葉紋 그리고 脫化된 龍紋과 二葉紋이 투조된 鈔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출토량도 많고 비교적 긴 시기동안 사용된 三葉紋 透彫 鈔들은 II 型式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그 변화에 따라 세분화하였다. 또한 橢圓形 鈔는 III 型式으로, 鬼面紋 鈔는 IV 型式으로, 逆心葉形 鈔는 V 型式으로 분류하였다.

鈔帶 型式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圖面14 鈔帶型式의 變化), I-1a 型式과 I-1b 型式은 晋代鈔帶 구성요소이며 유사한 형태의 한반도 출토품은 그 수입품으로 추정된다. 以後 三葉은 二葉으로(I-2 型式), 晋代式 龍紋 透彫 鈔는 方形板에 脫化된 龍紋이 透彫되는 型式(I-3 型式)으로 변화되었으리라 생각된다. 三葉紋이 透彫 紋樣의 주류를 이루는 II 型式 鈔의 경우 II-1 型式의 鈔가 더욱 더 복잡해져서 II-2 型式으로 변한 것으로 생각되며, 한편으로는 점차 단순화 과정을 거쳐 II-3 型式 그리고 II-4 型式으로 변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II 型式과 V 型式의 경우에는 新型式이 출현한 후에도 古型式이 소멸되지 않고 함께 사용되었으

며, 金冠塚 出土品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 ■ 참고문헌

- 1) 國立中央博物館(編), 『스키타이 황금』, 朝鮮日報社, 1991.
- 2) 吉林省文物工作隊, 「1976년 集安洞溝高句麗墓清理」『考古』1984-1.
- 3) 金基雄, 「日本の 古墳文化를 통하여 본 韓國文化의 日本傳播」『韓國史論』16, 國史編纂委員會, 1986.
- 4) 金文子, 「古代 우리나라 帶鉤에 대한 研究」『服飾』제27호, 1996.
- 5)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第3版, 一志社, 1986.
- 6) 金元龍·安輝濬, 『新版韓國美術史』,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 7) 金宅圭·李殷昌, 「皇南洞古墳發掘調查概報」『嶺南大學校古蹟調查報告第1冊』, 嶺南大學校博物館, 1975.
- 8) 梅原末治,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查報告」『大正13年度古蹟調查報告第1冊』, 1932.
- 9) 梅原末治·藤田亮策編著, 『朝鮮古文化綜鑑』第四卷, 奈良:養德社, 1966.
- 10)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武寧王陵發掘調查報告書』, 1973.
- 11) \_\_\_\_\_, 『天馬塚發掘調查報告』, 1974.
- 12) \_\_\_\_\_, 慶州史蹟管理事務所, 『慶州地區古墳發掘調查報告』第1輯, 1975.
- 13) \_\_\_\_\_, 『慶州皇南洞第98號古墳(南墳)發掘略報告』, 1976.
- 14) \_\_\_\_\_, 『皇南大塚(北墳)發掘調查報告書』, 1985.
- 15) 濱田耕作·梅原末治, 「慶州金冠塚と其遺寶」『大正13年度古蹟調查特別報告』第三冊, 1924.
- 16) 野守健·小泉顯夫, 「慶尙北道達成郡達西面古墳調查報告」『大正12年度古蹟調查報告第1冊』, 1932.
- 17) 王仁湘, 「帶鉤略報」『考古』1986-1.
- 18) 有光教一, 「慶州皇南里第82號墳, 第83號墳調查報

- 告』『昭和6年度古蹟調査報告』第1冊, 1935.
- 19) 尹善姬, 『三國時代 鈎帶의 起源과 變遷에 관한 研究』, 서울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7.
- 20) 尹世英, 「古新羅·伽倻古墳의 編年에 관한 研究-古墳出土 冠帽를 중심으로」『白山學報』 17, 1974.
- 21) \_\_\_\_\_, 『古墳出土 副葬品 研究』, 서울:高麗大 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8.
- 22) 任明美, 『蒙古服飾』, 경춘사, 1992.
- 23) 周迅, 高春明, 『中國歷代婦女妝飾』, 三聯書店, 上海學林出版社, 1988.
- 24) 秦弘燮, 「韓國文化의 考古學的 研究」『韓國文化史大系 I』, 1985.
- 25) 崔秉鉉, 「古新羅 積石木槨墳의 變遷과 編年」『韓國考古學報』 10·11合輯, 1981.
- 26) 韓國考古美術研究所, 『韓國考古學改正用語輯』, 1984.
- 27) 韓炳三, 『韓國文化史大系』國寶2 古墳金屬II, 서울:藝耕産業社, 1986.